

# 전남 남해안 양식장 적조·고수온 피해 비상

### 완도·고흥 등 전북·키조개 어패류 2550만 마리 폐사 도, 긴급방재 예비비 8억 투입·선박 동원 방재 나서

최근 전남 남해안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수온이 30도를 웃도는 이상 고수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양식어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완도 등 전남 남해안 일부 해안에서만 어패류 2500만여 마리(미)가 폐사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남해안 일대가 이상 고수온 현상 등으로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10일간 완도·장흥·고흥·여수 등 가두리 양식장에서 우럭·참돔·납치·전복·키조개·새조개 등 양식·자연 어패류 2550만 마리(미)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폐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완도로, 전북 양식장에서 전북 2500만 미가 폐사했다.

폐사 원인은 연이은 이상 고온에 높아진 바닷물의 온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주 전남 남해안 일부 평균 해수온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양식 어류의 집단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과원)은 분석했다.

최근 해당지역 수온은 최저 24도에서 최고 완도 30.3도 분포로, 여수 화양·화정·남면·돌산(25.6도~29.1도), 장흥 특량만(26.3도~30.3도), 완도 신지·약산·금일

(24도~26도), 고흥 소록도·거금도(25.1도~28.5도) 등이다.

이는 우럭(12~21도)·참돔(20~28도)·돌돔(23~26도) 등 어류별 적정 수온보다 매우 높은 온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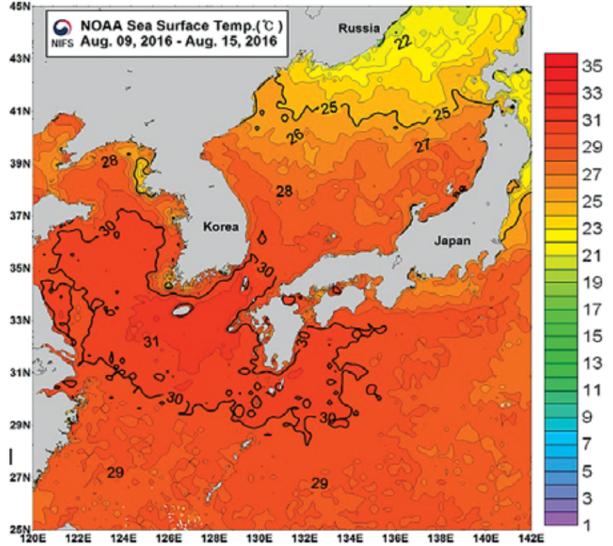
문제는 고수온이 지속하면서 적조도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 장흥~여수해역(장흥 노력도 종단~여수 돌산도 동측 종단)은 지난 16일 오후 8시를 기해 적조관심(적조생물총) 주의보 발령 이후 장흥~여수 해역 중간에 위치한 고흥 외나로도와 여수 돌산도 사이 구간의 적조생물의 밀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지난 17일 적조주의보로 대체됐다.

최근 적조에 이상 고수온 현상까지 겹치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전남도와 각 시·군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이상 고수온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긴급방재 예비비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양식장 주변 해역에서는 선박이 물살을 일으켜 적조생물을 분쇄하는 수류방제를 실시하는 등 적조방제에 안전함을 쏟고 있다.

또 육상수조식어장에는 2억원을 투입해 어업인의 액화산소 구입비 50%를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완도 등 해당 지자체는 국



달아오른 바다 폭염으로 별갈게 달아오른 한반도 주변의 해역을 보여주는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의 위성 관측자료. 지난 9~15일 관측한 것으로 평년보다 최고 5도나 상승해 27~31도를 기록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990년 관측 이래 26년 만에 가장 높은 온도라고 밝혔다.

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한 뒤 이상 고수온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 배택휴 해양수산국장은 “고수온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

업인들은 사료공급 중단과 차광막 설치 등 적극적인 어장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정충=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광주시 중앙부처 공모 855억 국비 확보

### 맞춤형 인력 양성 등 91건 선정

광주시는 올해 들어 정부 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91건이 선정돼 모두 855억 82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공모사업은 지자체에 반영된 국비와는 별도로 부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추가적인 국비 확보의 성격을 갖는다.

사업별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130억원) ▲지역주력 산업 육성(96억83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58억3000만원) ▲새뜰마을사업(38억3000만원) 등이 규모 면에서 두드러졌다.

이밖에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사업(10억원), 지역 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웹 운영지원(10억원), 지역특화 문화 콘텐츠 개발사업(16억원), 뇌과학 원천 기술 개발사업(10억원), 광주주 주변 누

리길 조성(12억원) 등 지역 전략산업, 현안과 관련된 사업도 눈에 띄었다.

특히 시가 미래 먹거리로 중점 육성하는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돼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연초 모든 부처 공모사업 현황과 예산서를 입수해 실·국별로 대상사업을 발굴하도록 했으며, 운영현황 보고회 등을 열어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 한 톨의 국비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공식적인 지방사업 예산편성 외에도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의 재정적 한계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종합계획 마련

### 부정청탁 금지 담당 지정

###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광주시가 다음달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법 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를 위해 시 감사위원회(7명)가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위원회’ 역할을 하기로 했다.

시는 경제, 농·축산, 음식업, 시민사회단체 등 분야별 교육·소비 촉진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본청, 소속 유관기관에 부정청탁 금지담당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법 시행 전 한달을 ‘청렴강조의 달’

로 지정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대시민 청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또 오는 31일 한국청렴연구원을 초청해 교육과 홍보를 하고 다음달 한차례 교육을 더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 대상 홍보물과 해설·사례집을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질의·응답과 위판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공직자와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도 정비하기로 했다.

성문숙 시 감사위원장은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줄이고 공직자 청렴도 향상 등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野 “청, 우병우 구하기는 본말전도”

### 靑 “감찰유출은 국기 흔드는 일” 정면돌파

### 새누리, 우 거취 놓고 당대표-원내대표 빼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청와대가 지난 19일 ‘감찰 유출 의혹’과 관련,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의 의도성을 지적하면서 정면돌파하지 야당이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인론에 유출하고 특정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묵과할 수 없는 시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

붙였다.

이는 언론보도도 촉발된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인론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등은 ‘대통령 흔들기’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본말전도이자 자충수”라고 반발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런 대응이 오히려 현 정부의 레임덕을 재촉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감찰이 끝까지 ‘하수인’ 역할을 할지, 칼을 빼들지 모른다. 이번 청와대의 대응은 무리수이자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의 편리한 판단과 고집이 더 큰 국기문란”이라며 “우 수석

의 국기문란은 보지 않고 이 감찰관의 국기문란으로 뒤집어써 위 ‘우병우 일병’을 구하려는 작전이지만 이런 식의 통치는 레임덕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서는 ‘투톱’인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를 놓고 빼걸거리고 있다.

정 원내대표가 우 수석의 사퇴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반면,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가급적 말을 아끼는 등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우 수석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긴 했으나 진상 규명을 통해 문제가 드러난다면 물러나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청와대의 기존 견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남도 영산강 간척지

### 대규모 한우단지 추진

전남도가 영산강 간척지에 대규모 한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당 산이면 영산강 간척지(3-1지구)에 한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간척지 사용 승인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이다.

전남도는 713ha의 면적에 483억원(국비 77억원·지방비 25억원·용자 등 38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유기조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는 번식우 50%, 비육우 50%로 총 1만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로, 내년 착공해 2012년까지 단지를 완공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해당 간척지가 농업회사법인 5곳이 이미 농어촌공사와 30년간 임대계약해 조사료 등을 생산하고 있어 한우단지 조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램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램**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림동 광신프로그램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주)광신종합건설